광산구·담양·고흥 공장설립 '낙제점'…화순 中企창업 '최우수'

상의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광주·전남 시군구 점수 살펴보니

음식점 창업 환경 전남 지자체중 목포 최하위

다가구주택 신축 장흥·보성 전국 최고 등급

기업유치 지원 광산구·여수·목포 양호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제활동 친화성' 지표는 모두 5개 항목의 점수를 가산해 평가됐다. 공장설립과 음식점 창업, 기업유치 지원, 다가구주택 신축,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이다. 등급이 높을수록 규제를 풀거나 기업 운영을 위해 행정처리를 앞당기고, 창업을 위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말이다. 광주·전남지역 27개 시군구 가운데 종합적인 평가로 보면 장흥군이 대체로 우수했고, 광주 서구의 환경이 뒤떨어진 편에 속했다.

공장설립 지표에서 광주의 동구와 서구는 B등급을 받아 중위권이었지만 북구와 남구는 C등급, 광산구는 D등급이었다. 공장설립 부문은 입지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총 인·허가기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광주지역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북구와 광산구가 전국 최하위권에 든 것은 지자체의 관련 일처리가 늦다는 뜻이기도 하다.

1위를 차지한 강원 영월의 경우 인·허가 기간이 평균 12일로 전국 평균 42일보다 훨씬 빨랐다.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서면심의를 제도화해 지연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했다. 전남에선 곡성과 구례, 광양, 순천, 여수, 장흥, 해남, 목포가 무난한 평가를 받았지만 담양과 고흥은 낙제점을 받았다.

음식점 창업은 입지제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테라스영업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광주의 5개 구청은 모두 C등급이었다. 자영업자가 많은 광주의 특성상 식당이 포화상태인데다 지자체 역시 옥외영업 등 관련규제 풀기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다.

전남에선 대부분의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얻어냈다. 해남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아 음식업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지자체는 A~B등급을 받아 무난했지만 목포 1곳만 D등급을 받았다. 해산물과 남도음식으로 유명한데다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목포의 음식점 창업 환경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가구주택 신축은 장흥과 보성 등 전국 16개 시군구가 공동 1위로 S등급을 받았다. 장흥과 보성 등은 인·허가 기간이 11일 이하로 빨랐으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다가구 주택을 못 짓게 한다거나 하는 입지규제도 없었다.

나머지 전남지역 지자체는 A~B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장성만 유일하게 C등급으로 뒤처졌다. 광주의 경우 동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가 C등급이었고, 서구는 D등급이었다. 유별난 주택 수요 부족 상황 속에서도 안이한 행정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화순이 S등급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26개 지자체는 A~B등급을 기록했다. 창업지원은 규제가 아닌 기업을 위해 더 노력하는 적극 행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C, D등급이 없다. 경남 창원이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최근 3년간 창업자금 지원금액이 2768억원으로 전국 평균인 73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기업유치 지원은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이 평가 대상이다. 광주에서는 기업이 다수 포진한 광산구가 A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B등급에 속했다. 전남은 여수와 목포가 S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다른 지자체는 A~B등급에 포진했다.

기업 체감도 조사는 대한상의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의 가중치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규제개혁위원), 금현섭 서울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델파이기법으로 산정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순위와 전국규제지도'를 29일 대한상의 홈페이지(bizmap.korcham.net) 및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공장설립

A등급	곡성, 구례, 광양, 순천, 여수, 장흥, 해남, 목포
B등급	광주 동구, 서구, 장성, 함평, 나주, 무안, 강진, 화순, 진도, 완도
C등급	광주 북구, 남구, 영광, 보성, 신안
D등급	광주 광산구, 담양, 고흥

◇음식점 창업

S등급	해남
A등급	장성, 담양, 곡성, 구례, 무안, 나주, 화순, 순천, 영암,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수, 완도, 신안
B등급	진도, 영광, 함평, 광양
C등급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D등급	목포

◇다가구주택 신축

S등급	장흥, 보성
A등급	나주, 무안, 영암, 강진, 완도, 고흥, 곡성, 구례
B등급	영광, 함평, 담양, 화순, 순천, 광양, 여수, 해남, 진도, 신안, 목포
C등급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장성
D등급	광주 서구, 장성

◇기업유치지원

S등급	여수, 목포
A등급	광주 광산구, 장성, 함평, 무안, 나주, 장흥, 완도, 진도
B등급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영광, 담양, 곡성, 구례, 광양, 화순, 보성, 순천, 고흥, 영암, 해남, 강진, 신안

◇중소기업창업지원

S등급	화순
A등급	광주 광산구, 동구, 남구, 장성, 무안, 해남, 완도, 여수, 광양, 목포
B등급	광주서구, 북구, 영광, 담양, 함평, 나주, 영암, 신안, 진도,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순천, 곡성, 구례

그린벨트 공장 신설·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

지방경제 발목 잡는 '규제 기요틴'

정부가 28일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일부 수도권 규제 해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해 이들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등에 사활을 걸어온 전남도 등에 타격이 불가피해 지방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82년 이후 30여년 이상 유지된 수도권 규제는 자본·인재·기업 등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더 강화해 지방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생산라인 증설, 개발사업 등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대학, 연구소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아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기조에 비춰볼 때 과거와 달리 좀 더 진전된 입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는 일단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해제의 필요성을 더 검토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논의해 완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8일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 과제로 분류된 것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의 안건이다.

이들 두 가지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경기도 등에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로 꼽아온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세 유형으로 나누고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는 6만㎡ 이상 규모의 공장용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또 수도권에 시·도별로 공장의 총량을 배정해 운영하는데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공장도 이 총량제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게 경제단체의 요구다. 이 경우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 총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규제 완화가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됐고 또 그때마다 거듭해 논의됐는데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이유다.

이 밖에도 수도권 U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문제도 추가 논의과제로 분류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기업 이전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연합뉴스

창의성 있으면 음식점업도 벤처인증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114개 과제 수용 결정

앞으로는 음식점업 사업장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장기 임대와 민간투자가 허용되고 전화요금 인가제 개선으로 통신상품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guillotine, 대규모 규제개혁 방식)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하면서 범정부적 규제개혁에 속도가 더해지게 됐다.

확정된 114개의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국민불편 개선뿐만 아니라 입지와 서비스, 환경 등 핵심분야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생활 속 체감도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 등 대내외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경제 재도약을 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기요틴제를 적용해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소관부처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처 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건의과제를 최대한 수용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건의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 전체 건의 건수 153건 중 수용된 과제는 114건으로 수용률은 74.5%에 달했으며, 이 중 전부 수용은 61건, 부분 수용은 18건, 대안 마련은 35건 등이었다.

정부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달라는 요구,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완화 요구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청 소관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업 사업장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 09:00~20:00(연중무휴)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 첨단LC타워 1층]	062)431-0102
가람여행사 수완점 [수완동 195 우리밀베이커리 2층]	062)955-5230

출발일 1/1 (목), 1/5(월), 1/9(금), 1/13(화), 1/17(토), 1/21(수), 1/25(일),1/29(목)

AAPF01-OX1 캐주얼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014,8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관광 있음
호텔: 준특급 호텔 투숙
특전 : 계절과일 + 음료 1병 제공
특식 : 호텔 씨푸드, 로얄 드래곤

AAPF01-OX2 클래식 [3.6.9 프로모션]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314,8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관광 있음
호텔: 초특급 호텔 투숙
특전 : 파타야 대표소 관람
특식 : 호텔 씨푸드, 한아랑 스페셜 특식, 로얄 드래곤, 그랜드 절 선상런치 크루즈

AAPF01-OXA 클래식 [多드림]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464,8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관광 있음
호텔: 초특급 호텔 투숙
특전 : 전통인마 2시간/ 발마사지 1시간
특식 : 고기뷔페, 한아랑 스페셜 특식, 바이욕 스카이 디너 뷔페

AAGF01-OX1 하나골프 [36홀+관광]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453,9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관광 있음
호텔: 준특급 호텔 투숙
특전 : 티파니쇼 , 전신마사지 2시간
특식 : 일식뷔페, 한아랑 쌈밥

[무안출발] 설날 연휴 마카오 전세기
항 공 에어 마카오 (NX 항공)
출발일 2월 19일 (목), 2월 22일 (일)
일 정 2박 4일 일정

CHPF05-NX1 캐주얼 마카오/홍콩 4일
총 상품가격 1,170,000원~
유류할증료 71,000원 포함
선택관광 있음
소호 관광+피크트램
호텔: 4성급 호텔 2박
특전: 마카오 베네시안 리조트 / 피크트램 탑승(편도)
특식: 2회 (암차식/사천식)

CHPF07-NX1 캐주얼 마카오/심천/홍콩 4일
총 상품가격 1,170,000원~
유류할증료 71,000원 포함
선택관광 있음
소호관광+피크트램+심천쇼
호텔: 4성급 호텔 2박
특전: 마카오 베네시안 리조트 / 피크트램 탑승(편도)
특식: 3회 (광동식/암차식/사천식)

지역별 추천 허니문 상품
하와이 쉐라톤

HHW200-OZC/KEE 오아후 6일 쉐라톤 와이키키
총 상품가격 2,679,1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 경비 포함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 12월~ 토/일/월요일
특전 : 쉐라톤 와이키키 파셜오션뷰→오션프론트 업그레이드, 와이키키 시내 위치한 코스 디너 1회 포함, 오아후 맛집 투어 포함

AXW101-A 몰디브 6/7/8일 반얀트리 바빈파루 리조트
총 상품가격 3,901,200원~
현지지불 ▶몰디브 공항 택스(1인 $25)
리조트 내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 12월~ 토/일/월요일
특전 : 전식 포함, 30분 파트너 마사지 레슨, 열대과일과 와인1병

AAW199-TG1 코사무이 6일 칸디부리(1)+뉴실라바디 파노라믹 풀빌라(3)
총 상품가격 1,802,6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 12월~ 일/월요일
특전 : 스파클링 와인1병&케익, 리조트 내 디너 1회 제공, 리조트 내 아로마테라피 60분 제공

PSW418-O/H 사이판 4/5일 마리아나 리조트 & 스파
총 상품가격 831,1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 경비 포함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 12월~ 토/일/월요일
특전 : Wi-Fi 변환기 대여(커플당 1대), 만디 아시안 스파 1회 무료 제공, [하나투어 단독]허머리무진 사이판 북섬 투어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 내역 및 금액,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